



1946년 3월 창간 제 2545호

湖南新聞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7월 17일 (음력 6월 5일) 화요일

가축 수만마리 폐사…시·도 피해 정보 ‘엇박자’

전남도, 축산농가 52곳서 가축 7만4900여 마리 폐사 신고 접수

나주시, ‘최다 피해지역’ 불구 파악無…뒤늦게 실태 파악 나서

불볕더위로 인한 가축 폐사 등의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와 해당 시·군 관계 정보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나주시와 함평·담양 등 축산농가 52곳에

서 가축 7만4900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액은 3억4000여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28농가에서 닭 6만 8000마리가 폐사, 1억73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오리는 4농가에서 6000마리 3200만 원, 돼지는 20농가에서 190마리 1억4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나주로 닭과 오리 등 20여 농가에서 3만여 마리가 폐사, 1억여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집계는 전남도에서만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시·군은 피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의 경우 현재까지 무더위로 인한 가축폐사 농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



복날 앞둔 삼계탕 전문점

복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삼계탕 전문점에서 시민, 관광객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뒤늦게 피해와 관련 문의 전화가 잇따라 자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축폐사 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 보험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집계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의 시·군이 피해 규모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폐사 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가 해당 시·군에 접수된 피해상황을 알려주면 확인이더라도 했을텐데 그렇지 않았다.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김정환 기자

Photo 漫評

수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한국당에는 외과 의사가 아니라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날 국회에서 열린 심재철 의원이 주최한 ‘보수 그라운드제로 난상토론회’에 참석해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최근 외과 의사인 이국종 이주대 외대 교수에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제안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당 정체성 혼란이 기증되고 있는데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있다”며 “선(先) 김성태 사퇴 후 후(後) 헤리를

그는 “수술이라고 했더니 이국종 교수 같은 진짜 외과 의사들 데려다 끌어가는 모양인데 저는 그러면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 수습방안을 놓고 갑수록 내용이 격화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살펴본다.

서은홍 · 자료사진=뉴시스



이국종 교수는 어떤?



외과 의사가 아니라 정신과 의사…



너나나나나…

김성태

죽에 전 과목 재시험을 치르도록 통보했다.

학교 측은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여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를간 9개 전 과목의 재시험을 치를 방침이다.

이 학교 정철원 교장은 “시험지 추가 유출이 밝혀질 경우 앞으로 학사일정과 대입 수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사설상 불가능해져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 서부경찰서는 행정실장 A씨와 학부모 B(52·여)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출

감사 과정서 행정실장 전 과목 유출 진술

학사일정 · 대입 수시 대비 전 과목 재시험

기말고사 전체 과목인 9개 과목의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에도 A씨가 인쇄실에서 시험지 여러장을 밖으로 들고 나가는 장면이 확인됐다.

당초 학교 측은 학생들의 신고로 3학년 시험과목 제출 교사들의 점검을 통해 9개 과목 중 국어·고전·미적분·기하와·벡터·생명과학Ⅱ 등 5개 과목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유출 과목에 한해 오는 17일 재시험을 치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A씨가 전 과목을 유출했다는 진술을 해 해당 학교

국금지 조치했다.

여의사인 B씨는 이 학교 운영위원회으로 활동중이며 올해에만 지난 4월과 6월 거쳐 각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했다.

A씨는 “아들을 의대에 보내려 한다”는 B씨의 요구로 지난 2일 오후 5시께 학교 인쇄실에서 3학년 기말고사 시험지를 복사한 뒤 사본을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유출 경위와 금품수수 및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인호 기자

전국 물레성형 경진대회
투게더 점핑 소일
초대형 워터 슬라이드

제46회 강진 침자축제
2018. 7. 28.- 8. 3.(7일간)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
개막퍼포먼스 : 2018. 7. 28.(토) 오후 7시

□ 기획행사 : 품을 밟고·던지고·적시고(투게더 점핑 소일), 전국 물레성형 경진대회 등
□ 전시행사 : 전국 도자 전시 및 판매, 제18회 고려청자 특별전, 조선민화 특별전 등
□ 체험행사 : 불링공 청자 깨뜨리기, 물 풍선타트레 청자 가져기, 초대형 워터 슬라이드 등
□ 공연행사 : 광주KBC 개막 축하소, 나이트 팝 페스티벌, 한여름밤의 EDM 공연 등

제 11회
장흥 물축제
문화관광 축제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3년 연속 우수축제

2018. 7. 27.(금) ~ 8. 2.(목) / 7일간
장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 개막식 : 7월 27일 (금) 오후 8시
- 살수(蘸水) 대첩 거리 퍼레이드 : 7월 28일 (토) 오후 1시
- 지상 최대의 물싸움 : 7월 27일 (금) ~ 8월 2일 (목) 오후 2시
- 맨손 물고기 잡기 : 7월 28일 (토) ~ 8월 2일 (목) 오후 3시
- 장흥 워터 퍼레이드 풀파티
 - 7월 27일 / 로고, 다이나믹듀오, DJ 소다, DJ 두유
 - 7월 28일 / DJ 원투, DJ 혁조교
 - 7월 29일 / DJ 춘자, DJ miss K